

『桑韓唱和墳簾集』에 관한 연구

— 구성 및 내용 검토를 중심으로 —

김진경*

<目次>

- | | |
|--------------------|------------------|
| I. 서론 | III. 구성과 내용 |
| II. 간행 경위 및 편찬 원칙 | 1. 구성 및 내용 검토 |
| 1. 서지 사항 및 간행 경위 | 2. 구성의 특징 및 그 의의 |
| 2. 편찬 원칙 및 교감의 필요성 | IV. 결론 |

<국문 초록>

『桑韓唱和墳簾集』은 1719년(己亥)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일행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주고받은 筆談과 시작품을 일본인 瀨尾維賢이 모아 그 이듬해에 京都에서 간행한 필담창화집이다. 기해년 사행과 관련한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으로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구체적인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는 매우 영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桑韓唱和墳簾集』의 간행 경위 및 편찬 원칙을 밝히고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통신사 사행 관련 자료로서 18세기 韓日 문화교류의 다양한 양상을 구명하는데 지니는 가치를 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桑韓唱和墳簾集』의 구성은 통신사 일행의 여정에 따라 필담을 나누었던 장소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필담과 唱酬한 시들은 日本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yeshanmoon@hanmail.net

本州로 들어갈 때와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한 데에 묶어 편집하였다. 내용 중에는 京都보다 지방의 지식인들과 나눈 필담과 창화시가 많다. 필담의 내용을 통해 기해년 이전에 사행을 다녀간 조선인들의 근황, 조선의 주자학과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들, 조선 문단의 창작 경향,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는 서적들, 서법, 조선의 문물, 조선의 예법, 조선의 의학 관련 지식 등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그 관심의 정도가 매우 진지했음을 알 수 있다.

조선통신사들에 의해 대부분 일기 형식으로 쓰인 사행 기록과 비교하여 어떤 변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실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桑韓唱和塤簾集』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제어】 상한창화훈지집, 기해년 사행, 통신사, 필담창화집

I. 서론

1719년(己亥) 使行의 목적은 德川吉宗의 제8대 장군[幕府의 실권자]직 계승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행단은 4월 11일 조선을 출발하였다가 1720년 1월 24일 돌아와 복명하였다. 이 때 조선통신사행을 통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진 교류의 양상에 대해서는 申維翰의 기행 일기인 『海游錄』을 토대로 하여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申維翰은 그 당시 製述官으로 사행에 참가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 논의의 대부분이 申維翰 개인의 日本觀을 파악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¹⁾ 아울러

1)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 - 신유한의 『海游錄』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 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pp.36-50.;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海游錄』에 나타나는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관계사연구』 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pp.5-46.; 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pp.115-145.; 정영문, 『조선시대 통신사문학 연구』, 지식과교양, 2011.

『海游錄』 외의 기해년 조선통신사행과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는 『桑韓唱酬集』²⁾과 『航海獻酬錄』³⁾ 등이 『海游錄』과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되었을 뿐이다.⁴⁾ 당시 사행을 통한 양국 간의 교류와 그 의미에 대해 보다 精緻하고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자료를 통한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필요하다.

『桑韓唱和墳簾集』은 1719년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일행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주고받은 筆談과 시작품을 일본인 瀨尾維賢이 모아 그 이듬해에 京都에서 간행한 필담창화집이다. 기해년 사행과 관련한 현전하는 자료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으로 당시 조선과 일본의 구체적인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醫史學的인 측면에서의 연구⁵⁾가 한 편 있을 뿐 매우 영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桑韓唱和墳簾集』의 간행 경위 및 편찬 원칙을 밝히고 구성과 내용을 검토하여, 그것이 통신사 사행 관련 자료로서 18세기 韓日 문화교류의 다양한 양상을 구명하는데 지니는 가치를 소개하고자 한다.

-
- 2) 1719년 가을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을 방문하였을 때, 河間正胤 등의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 일행이 묵고 있는 숙소를 찾아와 조선통신사 일행과 일본 의관들 사이에 필담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浪華 河間正胤이 정리·교정하고, 서문을 써서 이듬해 가을에 간행한 것이다. 전 3권 3책이다.
 - 3) 1719년 조선통신사 일행이 大阪 西本願寺에서 5일간 머물렀을 때에 九州 熊本の 水足安直과 그의 아들 水足安方이 申維翰·姜栢·成夢良·張應斗 등과 나눈 필담과 창수시를 모아서 水足安直이 간행한 것이다.
 - 4) 박찬기, 「18세기 초 大阪에서의 申維翰과 水足屏山」,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pp.183-207.; 이해순, 「18세기 韓日 文士의 교류양상 - 己亥 使行時 韓日 文士의 酬唱集을 중심으로 -」,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pp.315-363.
 - 5) 함정식, 「『桑韓唱和墳簾集』의 의과학적 연구 - 1719년 己亥使行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 경희대대학원 韓醫歷史學科 박사학위논문, 2009. 이 논문에서는 『桑韓唱和墳簾集』에 보이는 의학문답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것들 토대로 『桑韓唱和墳簾集』이 가지는 의과학적 성격에 관해 究明하였다.

II. 간행 경위 및 편찬 원칙

1. 서지 사항 및 간행 경위

1) 서지 사항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그 서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표제 : 桑韓墳簾集; 列朝韓使來聘考 / 瀨尾維賢 編
- 판사항 : 木板本(日本享保版)
- 발행사항 : 京都 奎文館, 享保5(1720)
- 형태사항 : 11冊 ; 25.8 x 17.6 cm
- 주기사항 : 表紙名; 桑韓唱和墳簾集 / 序(時棟); 享保庚子(1720) / 序(用拙拙散人); 享保庚子(1720)

2) 간행 경위

『桑韓唱和墳簾集』의 간행 경위는 권10에 수록된 『韓客筆語』 序文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기해년(1719)에 조선의 사신단 일행이 바닷길을 따라 동쪽으로 와서 도성에 수레를 멈추었다. 製述官 靑泉 申維翰과 書記官 姜柏·成夢良·張應斗 등이 여행 중에 지은 문장이 샘솟는 듯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서 보고자 하였다. 한밤중에 객관은 분주하여 누구도 명함을 내밀지 못하게 하였는데, 나는 우연히 서기인 菊溪 張應斗와 의원인 西樵 白興詮 두 분과 더불어 약간 필담을 나누고 시를 수창하게 되었다. 훗날 조선 사신단이 서쪽으로 귀국할 때에 나는 두 명의 벗과 함께 琵琶湖와 도성의 객관을 방문하여 저 유명 인사들과 문장의 광채로 서로 비추어 필담과 수창한 시가 책을 이룰 정도가 되었다. 당시에 남북의 여러 현자들이 편지를 보내 그 기록을 한 번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한 분들이 많았지

만, 나의 필력이 매우 졸렬하여 그 일을 기록할 수 없었다. 어떤 벗이 내 마음 속의 생각을 기록하여 『韓客筆語』라고 제목을 붙였다. 스스로 판각할 일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그네가 갑자기 “당신은 신묘년(1711)에 일본과 조선의 수창시를 수집하여 판각하고 세상에 유통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째서 편찬하여 세상에 유포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나는 여전히 응낙하지 않았지만 사방의 문사들이 수고롭게 편지를 보내 재촉하여 마침내 많은 질병을 앓느라 모든 일을 그만 둔 와중에 시문을 얻는 대로 편찬하여 기록하였다. 순서에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종이에 올리고 『桑韓填篋集』이라고 명명하였다. 松山의 文學인 菊叢이 이미 서문을 썼으니, 나의 이 글은 마지막에 붙여서 세상에 유통한다. 享保 庚子年(1720) 上巳日 전날 用拙散人이 직접 쓰다.⁶⁾

위의 서문을 쓴 用拙散人은 從事官 李明彦의 書記 張應斗와의 필담에서 “저는 성이 瀨尾, 이름이 維賢, 자가 源左衛門, 호가 用拙齋입니다.”⁷⁾ 고 한 내용을 참고하면 瀨尾維賢이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桑韓唱和填篋集』 권10에 수록되어 있는 『韓客筆語』는 그가 기해년 조선통신사 일행과 琵琶湖와 도성의 객관에서 나눈 필담과 수창한 시들을 모은 것이다. 그 필담과 唱酬한 詩들의 양이 제법 되어서 책으로 판각하려던 참에 주위의 권유로 당시 사행단의 여정 곳곳에서 이루어진 필담과 唱和시를 모아 함께 간행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桑韓唱和填篋集』인 것이다.

- 6) 『桑韓唱和填篋集』 卷10, 「韓客筆語序文」, “歲己亥, 三韓使人, 沿海而東, 停車都城, 申製述三書記等在行中, 聞其文章如湧, 欲往觀焉. 夜館紛擾, 不許一人投刺來. 余偶爾與菊溪西樵二子, 筆語唱酬若干. 後西歸之日, 余同二朋, 過琵琶湖及長安客館, 與彼名流俊士, 文焰相赫, 其筆語唱酬成卷. 時南北諸賢, 託魚雁, 欲一見其錄記者, 亦多. 余筆甚拙, 而事不能記. 因一友人錄吾胸次之所蘊, 題曰韓客筆語. 自謀梓事, 有客卒然而謂曰, ‘吾子, 辛卯之歲, 收拾和韓唱和, 梓行于世, 今何不編纂而布海內?’ 余尚未喏, 然四方之騷士, 勞簡促之. 竟於多病百廢之中, 而隨得編錄, 序無後先, 盡上烏絲, 命曰桑韓填篋集. 松山文學菊叢, 已題卷首, 如余筆語, 則附其後, 以行于當世云. 享保庚子上巳前一日, 用拙散人自序.”
- 7) 『桑韓唱和填篋集』 卷10, “一從事官李公記室問僕云, ‘尊別號, 則既聞之矣, 更欲聞尊姓名. 僕, 姓張, 名應斗, 字弼文, 號菊溪居士, 又號丹溪散人’ 【答】僕, 姓瀨尾, 名維賢, 字源左衛門, 號用拙齋. 【問】貴庚多少? 【菊溪答】今年五十.”

서명의 ‘塤簾’은 원래 형이 ‘塤’이라는 악기를 붙면 아우는 ‘簾’라는 악기를 붙여 화답한다는 뜻으로, 형제간의 화목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서명을 『桑韓唱和塤簾集』으로 한 것에서 이 필담창화집의 내용을 통해 양국 지식인들의 형제처럼 돈독한 우의를 엿볼 수 있길 바라는 편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 『桑韓唱和塤簾集』의 서문은 松山 文學인 菊叢이 썼다는 언급이 보이는데, 菊叢은 前田時棟이란 인물이다. 그가 서문을 쓰게 된 경위는 『桑韓唱和塤簾集』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 서문에 보인다.

도성에 있는 市隱 用拙子가 편지를 보내와서 “『상한지훈(桑韓塤塤)』이 판각을 마쳤는데, 여전히 서문이 없으니 그대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했다. 내가 손바닥을 쓸며 “취미가 같은 자는, 찾아보면 세상에 있기 마련이다. 나는 用拙子와는 일면식도 없고 친구로서의 정을 나누며 말을 나눈 적도 없는데, 멀리서 나의 형편없는 글을 요구하니 이것이 어찌 우연한 마음이었는가. 게다가 나는 京城에서의 벼슬살이를 그만둔 지 벌써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수도의 소식은 희미하여 속세를 등진 것 같았다. 지금 『상한지집』에 새로 실은 것은 대부분 지방 인물의 작품이라고 하니, 인물의 풍부함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 기쁘다.” 하였다. 마침내 하찮은 글을 써서 물결에 부치니,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享保 庚子年(1720) 2월 12일[혹은 15일] 平安의 前田時棟이 松山 滄霞館에서 쓰다.⁸⁾

前田時棟은 편찬자인 用拙子의 부탁을 받고, 1719년 조선사행단이 다녀간 이듬해인 1720년에 이 서문을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前田時棟은 이미 20년 전에 관직에서 물러나 지방에서 지내고 있는

8) 『桑韓唱和塤簾集』, 「桑韓唱和塤簾集序文」, “雒之市隱用拙子齋書告曰, ‘『桑韓塤塤』, 刻成, 尙虛首簡, 子盍題之?’ 余撫掌曰, ‘同臭味者, 世有其人. 余與用拙子, 無半面之識·班荊之款, 而遠需鄙文, 此豈偶然情乎? 且余自一辭京城宦游, 業已二十霜, 京輦消息, 恍如隔塵世. 今聞集中新載, 多鄉人之作, 喜人物之盛, 不異於昔時.’ 終書一場茗柯, 附諸潮信, 序云乎哉? 享保庚子花朝, 平安前田時棟父, 秉翰於松山滄霞館.”

인물이고, 用拙子도 前田時棟이 市隱이라고 일컬었듯이 도성에 거처가 있긴 하지만 책방을 운영하며 학문에 마음을 붙이고 시와 술을 의지하면서 번잡하고 고민되는 세속의 일을 떨쳐버리고 지내는⁹⁾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인물들에 의해 거질의 필담창 화집의 편찬·간행 사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통신사 일행과의 교류가 일본 지식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큰 관심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 편찬 원칙 및 교감의 필요성

편찬 원칙은 『桑韓唱和填篋集』 凡例를 통해 알 수 있다.

■ 여러 주에서 일본인이 짓고 조선 사신이 화답한 시는 주옥같이 아름다운 것이 매우 많았는데, 찾아내기 매우 어려웠다. 채집하여 우연히 우리 집안에 입수된 것을 편찬했으니 감히 선후를 따지지는 않았다.¹⁰⁾

■ 선비들이 주고받은 시가 또한 많지만, 그 아름다운 시 가운데 유실된 것은 넓은 세상에 찾을 길이 없다. 후일 그런 시를 받을 기회가 있다면 이 책을 계승하여 遺集·後錄으로 편찬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¹¹⁾

■ 여러 명성 있는 현자들의 훌륭한 많은 시가 동서 천 리를 왕래하면서 기록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글자의 오류가 많지만 한 획도 함부로 고치지 않았다. 이는 가부와 잘잘못에 대해 식견이 좁고 용렬한 자가 입에 담을 바가 아니고 식자들이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이다.¹²⁾

9) 『桑韓唱和填篋集』 卷10, 「韓客筆語序文」, “余也, 幹蠱之暇, 寄意於文字, 且賴詩酒, 而放下世累.”

10) 『桑韓唱和填篋集』, 「凡例」, “倭唱韓酬於諸州, 珠玉猶多, 而最難搜索. 採偶入鄙家者, 彙編, 不敢爲後先耳.”

11) 『桑韓唱和填篋集』, 「凡例」, “縉紳先生填篋者亦多, 而靈蛇遺珠, 青雲無路. 他日如蒙下賜, 猶嗣于此, 編於遺集後錄, 有意耳.”

12) 『桑韓唱和填篋集』, 「凡例」, “諸名賢雄編鉅什, 東西千里, 傳寫落于人間. 其文

첫째 항목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수합의 절차와 편집 기준이다. 조선통신사 일행의 사행 길을 따라 지방 곳곳에서 양국 지식인들 사이에 필담과 시 창화가 이루어졌고, 그 양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각지에서 이루어진 그 많은 교류의 흔적들을 낱알이 모두 수집할 수는 없었으므로 가능한 만큼 최대한 수합하여 시간의 선후를 따지지 않고 모두 그대로 수록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둘째 항목에서는 향후 후속 작업에 관한 지침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간행하기 직전까지 수합된 것은 모두 수록하였지만 간행 시점에서 유실된 상태인 것은 찾기 어려워서 실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추후에 더 발견되는 자료가 있으면 ‘遺集’이나 ‘後錄’ 등으로 엮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항목은 『桑韓唱和填箎集』에 필담과 唱酬한 시들을 수록하는 기본 방침에 대한 설명이다. 분명한 오류라고 판단되더라도 편찬자 자신은 한 글자도 수정을 가하지 않았고, 그 이유는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읽는 이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桑韓唱和填箎集』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견되어 교감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의미상 글자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의미상 글자를 보충하는 것이 좋은 경우
- 원문은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주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원문에는 주석으로 되어 있는데 의미상 본문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
- 내용 전개상 필담의 주제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

字僞誤 亦多, 然不漫改一畫. 蓋其可否得失, 則非淺見庸輩所容口吻, 識者擇焉.”

Ⅲ. 구성과 내용

1. 구성 및 내용 검토

『桑韓唱和瑱簾集』은 「列朝韓使來聘考」, 「韓使官職姓名」, 「目次」, 「凡例」, 권1~권10, 補遺로 구성되어 있다.

1) 列朝韓使來聘考

「列朝韓使來聘考」는 역대 조선통신사 방문이력을 작성한 것으로 맨 앞부분에 “三韓에서 사신이 온 것은 대대로 國史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신의 성명을 모두 알 수 있다. 그래서 貞治 이래로 사신이 온 날짜와 사신단 일행의 대략을 기록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한다.”¹³⁾고 하고, 貞治 5년(1366, 丙午) 가을부터 기해년 사행까지의 역대 사행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아래는 「列朝韓使來聘考」에 실린 기해년 사행에 관한 기록이다.

중어문제(中御門帝) 향보(享保) 4년(1719, 기해) 가을 9월, 현 대군(大君; 德川吉宗) 때 정사(正使) 홍치중(洪致中) 【자는 ○○, 호는 북곡(北谷)이다】, 부사(副使) 황선(黃璿) 【자는 ○○, 호는 노정(鷺汀)】, 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 【자는 ○○, 호는 태호(太湖)이다】, 제술관(製述官) 신유한(申維翰) 【자는 주백(周伯), 호는 청천(靑泉)이다】, 서기(書記) 강백(姜柏) 【자는 자청(子靑), 호는 경목(耕牧)이다】 · 성몽량(成夢良) 【자는 여필(汝弼), 호는 소헌(嘯軒)이다】 · 장응두(張應斗) 【자는 필문(弼文), 호는 국계(菊溪)이다】, 의사(醫師) 권도(權道) 【자는 대원(大原), 호는 비목(卑牧)이다】, 사자(寫字) 정세영(鄭世榮) 【자는 후교(后僑), 호는 국당(菊塘)이다】 · 이일방(李日芳) 【호는 월암(月巖)이다】, 화공(畫工)

13) 『桑韓唱和瑱簾集』, 「列朝韓使來聘考」, “三韓來聘, 世著于國史, 使价姓名, 皆可考知也. 因記貞治以來, 來聘歲月·使員大略, 以備考云.”

함세휘(咸世輝)【호는 취헌(翠軒)이다】 등이 왔다.¹⁴⁾

이상의 기해년 사행 기록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列朝韓使來聘考」는 역대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문 날짜와 사신단 일행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이다.

2) 韓使官職姓名

「韓使官職姓名」은 기해년 조선통신사 일행의 관직과 성명의 명단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통신사 3명을 비롯한 당시 사행에 참가했던 총 475인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술년(1682)의 규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¹⁵⁾ 통신사 3명을 비롯하여 일본 지식인과의 필담에 주로 참여한 인물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通信使 3명

○ 정사(正使)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조참의(吏曹參議) 지제교(知製敎) 洪致中. 호는 北谷, 자는 士能이다.

○ 부사(副使)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전한(行弘文館典翰) 지제교(知製敎) 曺景延시독관·춘추관편수관(兼經筵侍讀官·春秋館編修官) 黃璿. 호는 鷺汀, 자는 聖在이다.

○ 종사관(從事官)

통훈대부(通訓大夫) 행홍문관교리(行弘文館校理) 지제교(知製敎) 曺景延시독

14) 『桑韓唱和埧簾集』, 「列朝韓使來聘考」, “享保四年己亥秋九月, 今大君時, 正使 洪致中【字○○, 號北谷】, 副使黃璿【字○○, 號鷺汀】, 從事李明彦【字○○, 號太湖】, 製述官申維翰【字周伯, 號靑泉】, 書記姜柏【字子靑, 號耕牧】·成夢良【字汝弼, 號嘯軒】·張應斗【字弼文, 號菊溪】, 醫師權道【字大原, 號卑牧】, 寫字鄭世榮【字后僑, 號菊塘】·李日芳【號月巖】, 畫工咸世輝【號翠軒】等, 來聘.”

15) 『桑韓唱和埧簾集』, 「韓使官職姓名」, “已上合四百七十五人, 一依壬戌年例者.”

관·춘추관기주관(兼經筵侍讀官·春秋館記注官) 李明彦. 호는太湖, 자는季通이다.

■ 수행한 인원[員役]

○ 제술관(制述官)

著作 申維翰. 호는靑泉이다. 을유년(1705)에 詩로 小科 進士 2등으로 합격했고, 계사년(1713)에 賦로 文科에 급제했다.

○ 서기관(書記官)

• 進士 姜栢. 호는耕牧子, 또 다른 호는秋水이다.

• 進士 成夢良. 호는嘯軒이다. 계축년(1673)에 태어나 지금 47세이고, 翠虛공의 조카이다. 【취하는 이름이 琬, 자가 伯圭이다. 임술년(1682)에 翰林學士로 일본에 왔다】

• 進士 張應斗. 자는 弼文, 호는 菊溪, 또 다른 호는 丹溪 혹은 丹丘이다. 지금 50세이다.

○ 양의(良醫) 1명 : 副司果 權道. 자는 大原, 호는 卑牧이다. 지금 42세이다.

○ 의원(醫員) 2명

• 別提 白興詮. 자는 君平, 호는 西樵이다.

• 副司果 金光泗. 호는 小心軒이다.

○ 화공(畫工) 1명 : 副司果 咸世輝. 호는 翠軒이다.

3) 目次

각 권수별 수록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필담에 참여한 일본 인물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附記하고 있어서 교류 대상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권수별로 명시해 놓은 地名과 人名이 실제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더러 발견된다.

4) 凡例

앞에서 이미 살핀 대로 『桑韓唱和墳簾集』의 편찬 원칙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5) 『桑韓唱和填篋集』 권1~권10, 그리고 補遺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¹⁶⁾	내용	비고
권1	東武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可竹【天龍寺 月心 장로로, 紫賜의 沙門이다】 • 石霜【東福寺 卽宗院 菴 장로이다】 • 正藪【성은 尾見, 자는 有孚로, 菅家の 문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可竹의 「山水贊詞」 외 2수 • 石霜의 「墨竹贊辭」 외 2수 • 正使 北谷의 「巨川」詩, 「過淸見寺」詩, 「驛路」詩 • 副使 鷺汀의 「奉贈以酌禪師」詩 • 從事官 太湖의 「奉贈以酌禪師」詩 • 正藪와 申維翰·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이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可竹과 石霜의 작품들은 두 장로가 東武 전각에서 將軍의 명령으로 그 자리에서 지은 것인데, 인간 세상에 유통되었기 때문에 기록함.
	尾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翠篋堂【荻隱士이다】 • 潑軒【성은 宅, 이름은 應璘, 자는 粹夫, 또 다른 자는 彌五左衛門이다】 • 朋崇【성은 山崎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翠篋堂·潑軒·朋崇 등과 申維翰·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이 나눈 필담과 시 	
권2	尾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玄洲【성은 朝比奈, 이름은 文淵, 자는 涵德, 또 다른 자는 甚左衛門이다】 • 蘭臯【성은 木下, 이름은 希聲, 자는 實聞, 또 다른 자는 達夫, 별칭은 玉壺真人 宇左衛門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玄洲·蘭臯·鶴渚·久敬·保合 등과 申維翰·姜栢·張應斗·白興銓 등이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玄洲가 9월 16일 밤에 張蕃客館에서 申維翰·姜栢·張應斗·白興銓 등을 만남. • 10월 25일에 本州에서 돌아오는 조선사신단의 수레가

16) 필담에 참여한 조선통신사 일행의 명단은 「韓使官職姓名」을 검토하면서 제시한 것과 중복되므로 다시 명시하지 않는다.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권2	尾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鶴渚【성은 福島, 이름은 昌言, 자는 子道源五右衛門이다】 久敬【성은 野中, 이름은 茂高, 자는 文八이다】 保合【성은 井出, 이름은 勘平, 자는 良重, 호는 夕替이다】 		尾藩의 性光院에 다시 머물. 玄洲가 그 날 밤 또 조선 사신들을 만남.
권3	濃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當壯菴【성은 北尾, 이름은 育仁, 자는 春圃로, 濃州 大垣의 의사이다】 春竹【성은 北尾, 이름은 忠, 자는 信義이다】 春倫【성은 北尾, 이름은 權, 자는 中正으로, 江州 彦根에서 임시로 거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垣에서 전기 회합과 후기 회합 때 春竹·春倫과 申維翰·姜栢·張應斗·白興銓 등이 나눈 필담과 시 春竹과 조선 의원 權道 사이에 이루어진 ‘醫員筆語’ 春圃·春倫과 조선 의원들과의 필담 彦根에서의 전기 회합 때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26일 밤에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濃州 大垣 객관에 도착함. 彦根에서의 전기 회합
권4	濃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春倫 	<ul style="list-style-type: none"> 彦根에서의 후기 회합 때 나눈 필담과 시 大阪에서의 2차 회합 때 春倫과 副使 막료인 鄭後僑 등이 나눈 필담과 시 大阪에서의 2차 회합 때 春倫과 조선 의원 權道 사이에 이루어진 ‘醫員筆語’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14일 조선 사신들이 彦根에 머물러 있었음. 11월 6일 春倫이 조선에서 온 손님을 전송하기 위해 浪華에 도착하여 수참함.
권5	濃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道仙【성은 北尾, 이름은 直, 자는 行方】 	<ul style="list-style-type: none"> 大垣에서 전기 회합과 후기 회합 때 道仙·春達·春乙 등과 申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 27일 밤 佐和 객관에서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권5	濃州	<p>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春達【성은 北尾, 이름은 敬, 자는 義方이다】 • 春乙【성은 北尾, 이름은 貞, 자는 虛中이다】 • 海山【성은 菅, 이름은 徵, 자는 董卿으로, 浪華 사람이다】 • 玄圃【성은 大竹, 이름은 重, 자는 子鼎, 호는 梅湖로, 濃州 大垣 사람이다】 • 立仙【성은 伊藤으로, 大垣의 의사이다】 	<p>維翰·姜栢·張應斗·白興銓 등 이 나눈 필담과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 사신의 「望湖亭」詩 세 수 	<p>모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彦根에서의 회합
권6	江州 彦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野田氏【이름은 盛英, 勢州 龜山住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小野田氏의 盆石에 대한 세 書記의 찬사 세 수 	
	江州 大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齊省【성은 服部, 이름은 保淑, 자는 中孚半右衛門으로, 丹州 龜山 青山侯의 洛邸 留守이다】 • 求其【성은 本山, 이름은 昌詮, 자는 三左衛門으로, 丹州 龜山 青山侯의 가신이다】 • 恕菴【성은 和田, 이름은 參倚, 자는 新兵衛로, 丹州 龜山城의 서기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齊省·求其·恕菴·恕菴由己·不克子·箴齋·毅齋 등과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저’는 지방의 大名이 江戶에 왔을 때 머무는 藩邸이고, ‘유수’는 留守居의 준말로, 강호에 상근하면서 막부나 다른 번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관직이다.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권6	江州 大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由己【성은 中村, 이름은 貞恒, 자는 幸太左衛門으로, 丹州 龜山侯의 가신이다】 • 不克子【성은 衣笠, 이름은 尹實, 자는 五左衛門로, 丹州 龜山侯의 가신이다】 • 箴齋【성은 西村, 이름은 勝信, 자는 七郎右衛門으로, 丹州 龜山侯의 가신이다.】 • 毅齋【성은 朝枝, 이름은 世美, 자는 源次郎이다.】 		
	浪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周齋【성은 源氏 日比, 이름은 아무개, 자는 正甫로, 浪華의 의사이다】 • 芳庵【자가 正昌, 호가 一健으로, 美作州 鶴山에 기거한다.】 • 晚翠【성은 松井, 이름은 貞恒, 자는 安節로, 止止齋라고 부르는데 和州의 의사이다】 • 觀瀾【성은 西村, 이름은 方, 자는 圓流, 호는 伴花主人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自周齋·芳菴·晚翠 등과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 觀瀾과 조선 의원과의 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월 8일, 自周齋가 大阪 서편 本願寺 객관에서 처음으로 조선의 學士 申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을 만남. • 목차에서는 自周齋의 성을 ‘日比’라고 하였다. • 芳菴은 목차에서는 “성은 卍山, 이름은 正昌으로, 日比氏의 맏아들인데 현재 美作州 津山에 거주한다.” 하였다.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권7	浪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屏山【성은 水足, 이름은 安直, 자는 仲敬半助로, 肥後州 侯의 文學이다】 • 出泉【성은 水足, 이름은 安方平之進이다. 이때 나이 13세로, 屏山の 아들이다】 • 菊洞【성은 藤原, 이름은 維祺, 자는 佐仲治이다. 이때 나이 15세이고 備中州 松山 書記 前田一進의 아들이다】 • 龍洲【성은 伊藤, 이름은 元熙, 자는 光風, 별호는 宜齋로, 越前州의 文學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屏山·出泉·菊洞·龍洲 등과 조선의 學士 申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이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屏山이 9월 8일, 大阪 本願寺 客관에서 조선의 學士 申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을 만남. • 菊洞이 10월 6일, 大阪 本願寺 客관에서 조선의 學士 申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應斗 등을 만남.
권8	浪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毅齋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毅齋와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毅齋가 9월 6일, 藤龍洲·松秋潭·江若水 여러 공들과 함께 靑泉·秋水·嘯軒·菊溪 등을 浪華 客관에서 만남.
	備後州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郊【성은 門岡, 이름은 直方, 자는 宗佐肥로, 後州 사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郊와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 嘯軒이 梅宇에게 답한 필담과 시 	
	防州 上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圭齋【성은 宇都宮, 이름은 三的, 자는 一角으로, 防州 吉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圭齋와 조선의 學士·書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 葵陽과 조선 의원 權道와의 의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권8	防州 上關	侯의 文學이다】 • 葵陽【성은 飯田, 이름은 玄機, 자는 道瑠로, 防州 岩國의 의사이다】 • 矯宇【성은 工藤, 이름은 敬勝, 자는 忠伯으로, 豊前州 松 平侯의 의사이다.】	학 관련 필담 • 東涯가 아우 梅宇에게 부치는 시가 附記됨	
권9	京師	• 寬齋【성은 飯田, 이름은 隆慶, 자는 玄啓로, 京城의 의사 이다】 • 剛齋【성은 林이고, 玄貞으로 불리는데 실제 이름은 義方으 로, 長州 荻城의 의 사이다】	• 寬齋·剛齋와 조선의 學士·書 記·醫官 등이 나눈 필담과 시	
권10	琵琶湖	• 用拙齋【성은 瀬尾, 이름은 維賢으로, 京 華 사람이다】	• 韓客筆語序 • 韓客筆語[用拙齋와 조선의 學士 申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 應斗 등이 나눈 필담과 시]	
補遺		• 習軒【성은 水足, 이름은 益至, 자는 有龍으로, 肥後州侯 의 武臣이다】 • 博泉【이름은 安方, 자는 斯立, 屏山の 아들이다】 • 葉菴【성은 前田, 이름은 道通으로, 越 前州 松岡의 講官이 다】	• 補遺目錄 • 習軒·博泉이 조선의 學士 申 維翰, 書記 姜栢·成夢良·張應 斗 등과 나눈 필담과 시 • 10월 6일의 「韓客筆語」: 葉庵 • 粟屋씨 가문의 여인이 쓴 필적 에 대한 序文과 詩 • 戶川씨의 墨蹟에 대한 跋文	

권수	지명	필담 참여 일본 인물	내용	비고
補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文蘭【防州 巖國의 土人인 粟屋 아무개의 딸인데 현재 나이 11세이다】 • 整齋【성은 戶川, 防州 巖國의 土人이다】 		

2. 구성의 특징 및 그 의의

『桑韓唱和填箋集』의 구성은 통신사 일행이 조선을 출발하여 日本 本州로 들어가서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시간상의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여정에 따라 필담을 나누었던 장소 별로 이루어져 있다. 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필담과 唱酬한 시들은 日本 本州로 들어갈 때[東行]와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西歸]의 것들을 모두 함께 묶어 편집하였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필담을 나누었을 경우 인물별로 조선사신단이 東行할 때와 西歸할 때 나눈 필담과 시를 한 데 모아서 배치하였다. 각 장소마다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므로 조선통신사 일행은 매번 상대방에게 자신들을 소개했고 필담창화집에 그 내용이 중복되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서 전체 체제에 있어서 간결성이 다소 떨어짐을 볼 수 있다.

내용 중에는 京都보다 지방의 지식인들과 나눈 필담과 창화시가 많다. 서문에서 前田時棟이 “지금 『상한훈지집』에 새로 실은 것은 대부분 지방 인물의 작품이라고 하니, 인물의 풍부함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 기쁘다.”고 했듯이 『桑韓唱和填箋集』에는 지방의 학식 있는 인물들이 많이 소개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의 간행은 그들이 당시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필담의 내용을 통해 기해년 이전에 사행을 다녀간 조선인들의 근황, 조선의 주자학과 주자학을 신봉하는 유학자들, 조선 문단의 창작 경향,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는 서적들, 서법, 조선의 문물, 조선의 예법, 조선의 의학 관련 지식 등 당시 일본인들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었고, 그 관심의 정도가 매우 진지했음을 알 수 있다.

교류의 양상은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 일행이 묵는 객관을 직접 찾아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조선통신사 일행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겼고, 함께 나는 필담과 시들을 기록하여 간직하고자 했다. 『桑韓唱和瑱簾集』 서문의 내용은 일본인들이 조선통신사들과의 교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원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享保 기해년(1719) 가을, 조선 사신이 우호를 다지기 위해 배를 타고 왔는데, 製述官 申維翰, 書記官 姜柏·成夢良·張應斗가 따라 왔다. 이에 온 나라의 문학 하는 선비들이 앞 다투어 명함을 내놓으며 교제를 청하고, 그 중에 한 마디 말씀을 얻은 자는 귀한 보배를 얻은 듯이 기뻐하고, 이별 후에는 갓난아이가 유모를 떠난 듯이 탄식하면서 아쉬워하였다. 어떤 학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신에 대해서 만남을 기뻐하고 이별을 슬피함이 이처럼 너무 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그대는 들어본 적이 없는가? 옛말에 ‘새로 벗을 알게 된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고, 생이별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 했다. 조선과 일본은 바다와 산에 가로막혀 있다. 시대는 같지만 거처하는 곳이 달라 만날 기회가 드물고 만남을 지속하기가 어려우니, 이에 비견할 만한 일은 없다. 슬픔과 기쁨의 깊은 감정이 참으로 당연하지 않겠는가.” 했다.¹⁷⁾

17) 『桑韓唱和瑱簾集』, 「桑韓唱和瑱簾集序文」, “享保己亥之秋, 朝鮮使臣, 航海修聯, 申製述·姜成張三書記從焉. 於是, 闔國揉觚之士, 爭先投刺, 得片語隻字者, 喜如獲連城之璧, 別後歎惜, 如嬰兒之離乳媪. 有一庠生問曰, ‘斯邦之人, 於韓客, 何喜相遇而悲相別之若斯太甚也?’ 余答曰, ‘子不聞乎? 古云樂無樂兮新相知, 悲無悲兮生別離. 朝鮮之與日本, 隔海闔山, 同世異處, 相遇之希, 而繼見之

IV. 결론

이상에서 『桑韓唱和墳簾集』에 관해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제 『桑韓唱和墳簾集』과 관련하여 남은 과제들을 제시하며 결론을 대신한다.

본고는 지금까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桑韓唱和墳簾集』에 대해 서지 사항, 간행 경위, 편찬 원칙, 구성과 내용 등을 소개하여 그것이 사행 관련 자료로서 가지는 가치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필담과 唱和한 시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서 그것들이 내포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기해 사행을 배경으로 편찬된 다른 자료들과의 비교 연구도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편찬자가 일본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조선통신사들에 의해 대부분 일기 형식으로 쓰인 사행 기록과 비교하여 어떤 변별점이 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실증적으로 이루어진다면 『桑韓唱和墳簾集』의 가치가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속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18세기 韓日 교류에 관한 보다 精緻하고 폭넓은 이해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難, 無物取俞. 悲喜之深感, 不固宜乎?”

<參考 文獻>

- 瀨尾維賢 編, 『桑韓唱和瑱簾集』, 京華書坊奎文館, 1720.
- 河間正胤 編, 『桑韓唱酬集』, 1720.
- 水足安直 編, 『航海獻酬錄』
- 구지현, 『통신사 필담창화집의 세계』, 보고사, 2011.
- 김태준, 「유교적 문명성과 문학적 교양」,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 박찬기, 「18세기 초 大阪에서의 申維翰과 水足屏山」,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 오바타 미치히로, 「신유한의 『海游錄』에 나타나는 일본관과 그 한계」, 『한일 관계사연구』19집, 한일관계사학회, 2003.
- 이혜순, 「18세기 韓日 文士의 교류양상 - 己亥 使行時 韓日 文士의 酬唱集을 중심으로 -」, 『조선통신사 사행록 연구총서1』, 학고방, 2008.
- 이혜순, 『조선통신사의 문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6.
- 정영문, 『조선시대 통신사문학 연구』, 지식과교양, 2011.
- 정응수,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일본관 - 신유한의 『海游錄』을 중심으로 -」, 『일본문화학보』 11집, 한국일본문화학회, 2001.
- 함정식, 「『桑韓唱和瑱簾集』의 의학적 연구 - 1719년 己亥使行 의학문답 기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원 韓醫歷史學科 박사학위논문, 2009.

Abstract

*A study on the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 Focusing on
construction and contents / Kim Jin Kyung**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was a collection of conversations by writing which was published by a Japanese intellect who collected written conversations and poetry between Chosun Tongsin staff dispatched to Japan in 1719(Kihae year) and Japanese intellectuals. It was published in Kyoto in the year of 1720. This collection boasts the most voluminous work among the present material related to the diplomatic journey in Kihae year. It is an important text which we can learn detailed pictures of transaction via diplomatic journeys between Chosun and Japan. In this regard, the present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publication process and explanatory notes on editing of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which has sparsely studied so far.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aims at introducing its value as materials related the diplomatic journey of Tongsin through the examination of its construction and the contents of conversation.

The construction of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is composed in line with the places where the Tongsin staff had written conversations with Japanese intellectuals according to their itinerary. The written conversations and reciprocally presented poetry made in one place were bound together without noticing whether it was written in the time of entering Japan or returning to Chosun. Through the contents of written conversations, we can identify that the Japanese people at that time had very serious and various interests in Chosun such as neo-Confucianism of Chosun, medical knowledge

* DanKu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Incumbent Researcher
/ yeshanmoon@hanmail.net

of Chosun, and features of the Chosun literature. If future research can identify the differences between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and other diplomatic journey records in the form of diary by Chosun Tongsinsa staff, the value of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is sure to be magnified.

【Key words】 『SanghanchangwhahunJi Collection』, the diplomatic journey in Kihae year, Tongsinsa, collection of conversations by writing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6일